

# 대통령 체포구속 인권침해, 폭거

“윤 대통령 구속 반헌법적 ... 인권위, 불구속 수사 권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등 40여 개 시민·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행태를 “반법치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권고하기 위해 논의하려 했으나, 인권위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방해로 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반인권적 폭거이자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소수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다수의 국민을 차별·배제하는 행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사법부와 공수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구속을 자행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판결, 법치 아닌 정치... 인권위 역할 수행하라”

단체들은 특히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게 불법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 등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대해 “헌법 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라고 몰아가는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권 보호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일부.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반대한다. 인권위는 반인권 사법부 비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우리는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좌파 시민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 전공보 공무원들이 회



의장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에 대해 인권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인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기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국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파괴된 아반사회로 질주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 판사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무르며 법문언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있어 불신을 넘어 배신감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이 장악한 사법부는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니다.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다수를 억압하는 인권은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라, 사법적국주의가 지배한 법원은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법원이 아니라 법복을 입은 정치패거리 집단이 장악한 부패조직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 질주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위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켜야 함을 청명한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를 인권의 이름

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반인권적인 폭거를 자행하며 이를 방임 및 사주한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및 내란범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적국주의에 경도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고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모든 내란 선동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 20.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47개 단체 외 시민단체 다수 CT◎



‘원인과 동기(動機)’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요 12:9~11)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데에는 원인이나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이나 동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인이나 동기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입니다.

원인이나 동기가 어떠한지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합니다. 똑같은 대상이나 상황이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을 받게 된 원인이라도 심령이 강건한 신자는 그것을 오히려 거울과 경계로 알고 교훈을 얻는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동기가 되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구성된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이번 사건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원인이나 동기가 되었습니 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반면 “나사로 까닭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모의하였습니다. 똑같은 대상과 상황을 두고 어떠한 원인과 동기로 삼는가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결정할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둘째,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인과 동기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인과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사로가 경험한 것 이상의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의 동기를

제공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 가운데 열 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게 하는 원인과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38년간을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과 동기 제공자가 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며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넷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원인과 동기를 제공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과 행복과 성공에 유익한 동기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도록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도록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노력하십시오.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엇이 원인과 동기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동기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동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으며, 이러한 생활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원인과 동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치상황의 안정을 위해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며 범죄자를 바르게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멈추고 정쟁이 아닌 정상적인 대화로 소통을 하고, 이 같은 와중에 틈을 노리고 파괴드는 중북세력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계락을 막아내고 복한의 야욕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산되도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해 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 WEA와 조직적으로 교류를 갖고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일부 대형교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WEA 서울총회를 비롯 일체의 배도행위가 발발하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 교단 제73차 총회 제9회 임원회

## 사법질서 붕괴, 사상 초유의 사태 법질서 바르게 세워야

WEA 서울총회 추진하는 일부 대형교회 배도중단 촉구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온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9회 임원회가 지난 1월 16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기도,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설교자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시 1:1-2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죄 많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

고 후 결의 및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전토의사항으로는 교회명칭변경 조교, 교회주소변경 보고, 2025년도 목사고시, 2025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개최, 한기총 제36회 정기총회 참석 등을 논의했다.

## “우리는 WEA를 비성경적인 단체로 규정한다”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단호히 비판

‘2025 WEA 서울총회 유치를 반대하는 교회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5 WEA 서울총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지난 1월 16일(목) 발표했다. 협의회는 예정 합동 축 목사와 장로 등 1,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기관으로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입장문에서 “2024년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공동위원장이 되어 ‘2025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출범됨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WEA를 비성경적인 단체로 규정한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우리의 입장 전문  
2025 WEA 서울총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교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 개혁신학에 엄정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 신배들은 이 귀한 신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였습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한기총, 2025년 신년하례예배 드려

정서영 대표회장, 갈등 봉합 분열 화해 방안 찾아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월 7일(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2025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새해 대한민국의 안정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신년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갈등과 대립, 분열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파면’, ‘구속’이라는 극단적 선동 구호로 국민을 자극하고, 편을 갈라 오로지 흑백 논리로만 판단해 분열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화해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가 성경을 봉독했다. 특송이 있는 뒤 전임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뜻대를 향하여’ (월 3:13~14)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신형 목사는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한기총이 올해도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뜻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전했다.

봉헌과 봉헌기도가 있는 뒤 신년축사가 이어졌다. 명예회장을 대표해 김동호 목사가,

공동회장을 대표해 권태진 목사가, 회원교단을 대표해 심하보 목사가, 회원단체를 대표해 고경환 목사가 각각 축사했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에선 함동근·김상진·이영희·윤광모 목사(이상 공동회장)가 차례로 대한민국의 안정, 한국교회와 한기총, 무안공화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광고와 참석자들이 찬송한 후 전임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한장총, 2025년 신년하례회 개최

권순웅 대표회장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이하 한장총)가 지난 1월 10일(금)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2025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상임회장 이선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규환 목사(백석 총회장)의 기도, 주다산교회 아이네스 여성중앙단

의 특송 후애어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살롬 부흥’ (롬 1: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순웅 목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살롬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 된다”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한국교회와 장로교회의 정

체성을 위하여”, “정국의 안정과 평화·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 됨을 위하여” “출산장려운동을 위하여”, “기후환경을 위해서” 각각 인도하고 직전대표회장 천환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신년하례회에서는 부회장 이영한 목사의 사회로 김유희 사모와 자녀들의 특별연주에 이어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신년사를 전했다. 이어 중경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김요셉 목사, 유만석 목사가 덕담했다.

이후 대표회장, 상임회장, 전임대표회장, 공동회장, 법인이사의 케이크 커팅과 공동회장 가성현 목사(합동통신)의 폐회 및 오찬기도, 사무총장 이석훈 목사의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오직 성경, 오직 언약적 순종’에 적극 참여

개신교단협, 개혁신교회연, 개혁신단협 연합 신년하례



양정섭 목사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 (사)한국기독교개혁신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3개 단체는 지

난 1월 13일(월) 오전 11시 여전도회관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가입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신년하례회 연합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한국기독교개혁신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승권 목사(예장 합동개혁신총회 총회장)의 대표기도, 강매환 목사(예장 21C성령총회)의 성경봉독, 개혁신총단의 특별 찬양,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형렬 목사는 수 1:1-9 말씀을 본문으



로 ‘오직 성경! 언약적 순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문제가 많은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오직 성경! 언약적 순종!’으로 나섰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안 후스, 코메니우스, 장 칼뱅, 존 나스 등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에 나섰던 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적 순종

의 기회를 주시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훈하신 점을 교훈삼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에 여호수아의 ‘언약적 순종’으로 성공한 것임을 기억하며, 개혁의 선구자들이 외치는 ‘오직 성경, 오직 언약적 순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한기보협, 신년 하례 감사예배

“보수신앙으로 뭉쳐 난국 극복해 나가자”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1월 6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소재 동 협의회 본부에서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고 바른 신앙 수호와 복음전도의 공동 목표를 위해 회원교단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를 추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예배는 상임회장 유광석 목사의 사회로 구속사 총회장 이드보라 목사의 감사기도, 함동보수 함순정 목사의 특별찬양, 기독교한국성경회 감독 한상일 목사의 요 15:1-15 말씀을 본문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참 교회는’

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의 불안한 시국의 빠른 해결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의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돌로소 회장 김해자 목사가, ‘선교 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예나우침선교회 조사 무열 목사가, ‘한기보협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한국성경회 한상민 목사가, ‘세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김담미니스터리 선교회 한성준 목사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합동보수 이재원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장진리총회 장한국 목사·오순절 총회장 정명규 목사는 축사로, 공동회장 이창희 목사는 색소폰 연주로, CLC선교회 직원 일동은 축하로서 신년을 축하했다.



## 심리정서지원 플랫폼 ‘마음하나’ 리뉴얼 오픈

기아대책, “혼자 속으로 끄꿇 앓지 마세요”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학령기 아동 및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심리정서지원 플랫폼 ‘마음하나’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음하나’는 기아대책과 LG전자가 지난 2021년부터 기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해온 심리정서지원 플랫폼이다. 전문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심리정서 콘텐츠와 프로그램,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윈스 톱으로 제공, 취약계층 아동을 비롯한 1020세대 이용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며 온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기아대책의 사업 전문성을 더해



지원 영역을 확대 및 개편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은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및 청년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도 익명으로 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 상담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대표적 서비스로는 ▲전문상담 서비스 ▲마음톡(48시간 내 댓글 상담) ▲마음장(커뮤니티 게시판) ▲콘텐츠(심리정서 지원 콘텐츠) 등이 있다. 이용객은 ‘전문상담 서비스’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마음톡’ 서비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음껏 고민을 털어 놓고 48시간 이내 댓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음장’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이용객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보호대상아동과 청년 취약계층의 심리·정서적 빈곤은 포데 친구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 예비 자립준비청년 위한 ‘드림업 프로젝트’

지파운데이션, 학습과 진로 멘토링, 강점 코칭 등 제공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은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예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드림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4,000만

원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학습과 진로 멘토링, 강점 코칭 등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등 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은 평균 5.7점으로, 일반 가정 청소년의 7.19점에 비해 1.5점 낮다. 이로 인해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진로 문제는 자립 이후 생계와도 직결된다. 자립준비청년 중 23.4%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서 퇴사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들이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지파운데이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YWCA연합회 박은실 신임 사무총장 취임

2025 YWCA 신년예배 및 사무총장 취임식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지난 1월 7일(화)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2025 YWCA 신년예배를 드리고, 사무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박은실 전 기획조정국 국장이 취임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은실 신임 사무총장은 “103년을 이어온 한국YWCA의 역사는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성들의 역사이며, 시대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꾸었는가?’라는 질문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답해온 역사라고 믿는다”면서, “AI와 디



지털 기반 사회,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난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연합회,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운동들을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 “불법과 불의한 탄핵 정국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 부산 교계 바른 복음전파, 연합과 교회부흥 매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47회기 대표회장에 정영진 목사 취임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1월 20일(월) 부산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제47회기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부산 기독교계의 연합과 부산지역복음화를 위해 하나 되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한편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탄핵 정국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신임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회장 김이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수영구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환 목사의 기도, 부산 100인 찬양단의 찬양, 회의록 서기 한성호 목사의 성경봉독, 예하성 전임총회장 경복기총 전임회장 신재

영 목사의 설교, 전기총회장 임명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신재영 목사는 사 43:4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취임하시는 정영진 목사님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귀한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더하여 지명하여서 정영진 목사님을 내는 내 것이라고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드린다. 너무나 힘든 시기에 부산을 이끌어갈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함임을 감사드리고 귀한 직분 영광스럽게 감당하길 것을 믿는다”라고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정영진 목사  
부기총 대표회장



박형준 목사  
부산광역시장



설교 신재영 목사  
전임총회장



격려사 김영준 목사  
총회장



부기총 신임회장 정영진목사(좌)와 전임회장 강안실 목사

이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뿐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축하 순서로 먼저 조용묵 목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부산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이를 기쁘게 말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사참배반대 결의와 북한의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초량교회에 모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과 WCC 제10차 대회가 벅스코에서 열렸을 때 강력히 대처하여 종교다원주의 정체를 알리고 한국교회를 일깨워 경각심을 갖게 한 일 등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며 대표회장에 취임하시는 정영진 목사님과 모든 임원 분들에게 충정으로 축하드리며 큰 기대를 갖는다”고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나라가 어렵다. 대



한민국이 잘 되도록 부기총회장 정영진 목사님과 임원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특히 부산의 여러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계속해서 정영준 수영구청장, 이정기 고신대학교 총장의 축사, 예하성 김영준 목사와 경남기총 대표회장 박석환 목사, 울산기총 대표회장 박학자 목사의 권면이 있었으며 축복기도로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이견재 목사,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구정장 16개구 군을 위해 송형섭 목사의 기도 후 이슬야상불(순복음 갈릴리교회)의 축가, 사무총장 이대형 목사의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 교계가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서로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고 사정을 살피며 부산지역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기총은 올해 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전하고 부산지역 교회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합집회 및 지역 봉사 활동을 통해 구원의 복음 전파와 복음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생명의 말씀

## 노아의 가족 신앙

(창 7:1~7, 23)



장 호 순 목사

· 충남지방회 전임회장  
· 금강순복음교회 담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는 심각한 타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가 480세가 되던 해에 홍수로 멸망할 것을 통보받았고, 10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로 인해 지구가 멸망하는 사건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죽었으나 노아의 가족 8식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노아의 구원신앙입니다.

1.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창 7:7)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즉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철통같은 교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구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배안에 노아의 식구들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 진리가 사라진 이때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무너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2.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창 7:5)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120년 후에 과연 심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인데 노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패륜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3.홍수 심판 때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창 7:23)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40주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심판 앞에서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결코 무섭고 두려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노아 가족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방주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아라랏 산에서 새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면의 타락한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시작을 앞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 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하나님의 보호하심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 교회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법의 원칙 무너트리면 사법부 존재 의미도 없다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유를 15자(字)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참 자기를 편한 대로 하는 사법부의 형태이다.

지난 2023년 거대 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을 할 때는 그 사유를 적은 것이 600자가 넘었다. 또 기각하는 사유도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감안 했다’고 하였다. 그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야당 대표는 관철되는 논리인데, 이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본다.

급기야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역할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흥분한 국민들이 난입하여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했다(대부분 20~30대 청년들). 물론, 폭력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법부의 판파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이날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데, 너무나도 사법부의 진지함이 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를 묻고 싶다.

야당의 대표는 당 대표와 영장을 기각하고, 또다른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서,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되었다. 그뿐인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기 위하여 한 판사는 자리도 옮기지 않으면서, 3년 이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다른 판사에게 넘기는 꼼수도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선거 사법에 대해서는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1심까지 6개월, 2심까지 3개월, 그리고 최종심까지 3개월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다 되도록 미적미적하다가 끝나는 사건들도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뚜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은 권력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다. 따라서 선출 받지 못한 권력이 선출 받은 권력을 심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객관성, 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나, 국민들이 실망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영장 심사와 수사하는 사법부와 공수처의 불법적, 편파적인 태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유일한 판단과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으로 대통령을 더 단단히 묶어매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동안 발반 실적도 없었

던 공수처가 ‘법의 과잉’과 ‘권력남용’을 보여 준 것이다.

거기다가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판에서 체포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 출입에 있어 그곳을 경비하는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요구하다 안 되니,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이 만든 공문에 관인을 직접 찍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簡印)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거대 야당은 마구잡이로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마치 시골장의 싸구려 물건 팔듯 남발하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외부의 주권과 손잡은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패와 부정과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원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뜨겁다. 최근 여론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는 10%대까지 내려갔으나 지금은

50%를 넘고 있다. 또 탄핵 찬성이 처음에는 75.7%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50%로 떨어져 탄핵을 반대하는 47%와 비슷해져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한 자리 수로 보여 주었던 20~30대가 46%까지 올라갔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외부 세력의 국가 침탈 현상과 야당의 정치적 폭거와 함께,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이것을 물리칠 지도자를 진정으로 찾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이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자신의 이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정신과 권리가 지켜지고, 정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기 원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약(微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며, 모든 주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절대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의 안정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양심의 소리로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공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기독교를 탄압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알아야 한다.

### 동정

#### 예장 개혁신년하례예배 개최



예장 개혁신교회(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지난 1월 14일(화)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홀에서 2025 신년하례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했다. 정 총회장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개혁신주의 보수신학에 기반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강조했다.

#### 한국기독교학회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학회(회장 황덕형)는 지난 1월 17일(금)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게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학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AI가 선사하는 장밋빛 환상에 도취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도모하는 건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라며 12가지 준칙을 제시했다.

#### 충남기총 대통령제포 법집서 무너져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귀환 목사, 이하 충남기총)가 지난 1월 15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라 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모두 무너져 버린 처참한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기총은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은 오간 데 없다”고 했다.

#### 한국의료선교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의료선교회(회장 박준범)가 ‘제57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다가올 한국의료선교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의선협은 지난 1월 18일(토) 서울 송파구 새송병원에서 총회를 열어 기존 명칭이었던 의료선교대회와 의료선교사대회를 각각 한국의료선교대회와 한국의료선교사대회로 개칭을 결정했다.



## 제73차 월례회 및 신년하례예배 개최

###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월 13일(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은혜와진리교회(담임 최형택 목사)에서 2025년 1월 월례회 및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독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잠 24:16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악인은 패망케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웃다고 인정하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지방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



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자”고 권면하며 2025년 전라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웃다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했다.

설교 후에는 총무의 인도로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며 감감신전 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최형택 목사의 기도도 시작된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점명과 총무 서기 회계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최남성 목사의 기도도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후 광양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제공한 애찬과 다과를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나누고 대한민국과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전라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신년하례예배, 부흥의 한해가 되길 소망

###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월 7일(화) 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임회장 조정학 목사(주님의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재무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행 17:24-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국경을 정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시국의 혼탁함 속에서도 주의 종들은 굳건한 믿음의 자세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정치적 문제로 교회가 양분화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시고 거주자의 경계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길 바란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개인의 정치 성향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충만한 지방회 모든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회계 조은혜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

쳤다.

2부 순서에서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인도로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부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정영진 목사(갈릴리교회)를 함께 축하했다.

이후 주찬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한우 곱창으로 오찬을 나누고,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새해의 목회계획 등을 나누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사명의 소망과 격려 주시는 은혜의 말씀 선포

###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1월 7일(화) 오전 11시 화순도곡에서 신년하례회 및 시무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이대수 목사의 찬양 인도로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새해 사명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다.

이어서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정순 목사(은혜의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예배를 위한 기도도 이어졌다.

사회자의 성경봉독과 지방회 전임회장 조길수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설교가 진행되었다.

이날 조 목사는 수 1:1-9 말씀을 본문으로 ‘새 날, 새 정책, 새 시명’이라는 설교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회원들의 사역과 지방회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는 사명의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시간으로 전임회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북면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임회장 조은주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교단과 지방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

졌다.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순복음새샘물교회)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준비된 만찬과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할박눈이 펄펄 내렸다. 하얗게 뒤덮인 자연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에도 담고, 사역지를 향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헤어졌다.

## 새해 첫 월례회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1월 14일(화) 오전 11시 주품에교회(담임 조숙희 목사)에서 새해 첫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근설 목사(생명수교회)의 대표기도, 주품에교회 조숙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수 6:1-5 말씀을 본문으로 ‘짜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고 성을 돌며 외칠 때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금 충북 주사파와 불법이 만연한 시대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당당히 나아가 불의에 항거하며 나라가 종북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용 목사(새희망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지난 12월 송년 여행을 비롯한 각 부서별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지방회장의 기도도 회의를 마쳤다.

이후 주품에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만찬을 통해 교역자간의 교제를 나눈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1월 14일(화) 순복음찬양교회(담임 김효신 목사)에서 신년하례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서경오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후 사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히 11:24-2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상급’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믿음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고난 받



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며 지방회원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총무의 광고 후에 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의 인도로 마치고 신임 전도사의 인사 후, 찬양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누룽지)과 종식을 갖고 카페에 모여 2월 월례회의 안건과 교제를 나눈 후에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1월 14일(화)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74번길 6에 위치한 안다독교회(담임 배진기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오경덕 목사의 성경봉독, 사모회의 특송, 배진기 목사의 시 89:8-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승평과 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배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받



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고 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이종섭 목사의 헌금기도, 윤득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지방회원들 간에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와 친교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시무예배 드리고 힘차게 목회 감당할 것 다짐

###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윤철희 목사)는 지난 1월 9일(목) 안동성곡교회(담임 강태진 목사)에서 2025년을 힘차게 감당하기 위한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정인철 목사의 대표기도, 전임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살전 5:16-18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기뻐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된 주의 종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회개하면서 이겨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설교 후 헌금을 위해 총무 이항구 목사가 기도하고 전임지방회장 허만운 목사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장 윤철희 목사의 인도로 어지러운 시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월례회를 시작하고 마쳤다.

그리고 안동성곡교회에서 섬겨준 고급뷔페로 이동해 교제하며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후 안동성곡교회로 돌아와 특별히 지방회 단합을 위한 식사대회를(웃음!) 가졌다.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진행했고 순위별로 상금을 지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방회에서 목사와 사모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릴 것 다짐

###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월 13일(월) 뽕엘교회(담임 김기인 목사)에서 시무 및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찬양인도, 김남순 목사(헬문산기도원장)의 대표기도, 이광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뽕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57:1-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기름부음 받은 사울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해치지 않았던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장인이자 왕인 사울의 미움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하여 혼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



님께만 예배함으로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기도도 부르짖어야 한다. 의로운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위상승배에서 벗어나 변화돼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표한자 목사(시냇가에임은나무교회)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빛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안건 토의를 거쳐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뽕엘교회에서 점심으로 섬겨준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교제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불법부당한 탄핵정국을 바로잡고 부정선거 대책 마련, 지역 균형발전 위해 기도

##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

###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 2025년 제1차 조찬기도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25년 제1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지난 1월 18일(토) 오전 7시 신광교회에서 개최

하고 불법부당한 탄핵정국을 바로잡고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실무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현상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의

설교, 박차영 목사의 헌금기도, 고문 김소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11:17 말씀을 본문으로 ‘접붙임이 되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잘라내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접붙였던 그 사람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그 가지도 하나님께서 잘라내 버릴 수 있다고 하셨으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생활을 잘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참

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열린 2부 기도회는 공동회장 허은식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황기식 목사, ‘아산시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 서석웅 목사,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황화성 목사, ‘차별금지법과 WCC 반대를 위하여’ 차추병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서 3부 신년하례회는 상임회장 황창익 목사의 인도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신년사, 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명수 자문위원(전 국회의원)의 인사말,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와 정치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는 신년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모르드개와 하만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현대 정치의 무대에서도 모르드개와 같은 정의로운 지도자는 찾기 어렵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이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거대한 장대를 세우고, 자신을 위협하는 정의를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권력자들 또한 음모를 꾸미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성경에서 하만의 음모가 결국 그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모략 또한 그

와 같을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공의를 바로세우는 한 해가 될 것을 강조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조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 강릉시기독교연합회 2025년도 신년하례예배



말씀증거  
김용덕 목사

강릉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월 9일(목) 영동제일교회(담임 김용덕 목사)에서 2025년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불법과 불의가 난 무하는 탄핵정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

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영동지역 발전과 지역복음화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명산 그리스도의교회 홍현표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주상근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담임, 예하성 전임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7:6-11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람의 연약 성취’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이며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했다.

인간에게 어떤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심으로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인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한 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석주 목사의 광고, 강릉시 문화관광과의 글로벌별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식을 가졌

며, 강릉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직전 회장에 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다.

김영학 목사의 축도로 이날 예배를 마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 월례회 개최하고 지방회 각종 회무 처리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1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하늘샘교회(담임 박태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박태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박태균 목사의 성경봉독, 문찬우 목사의 요 20:24-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진실한 질문은 답을 얻는다’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방회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탁정신 목사의 헌금기도, 오세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소담촌 구산점으로부터 옮겨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신년하례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한 해

###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권용덕 목사)는 지난 1월 21일(화) 오전 11시 진부제일교회(담임 이성은 목사)에서 지방회 신년하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성은 목사(진부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순기 목사(예수사랑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권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권용덕 목사는 계 14:7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저 심연에 있는 바다와 높고 높은 데 있는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유홍열 목사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전정길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김중애 목사(군업리교회)의 헌금기도, 원주총성교회 박순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전도사 엄준필에 대한 임명, 춘천소망순복음교회 김선경 목사의 교역자 가입인사가 있었다.

이어 지방회장 권용덕 목사는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로목사님 격려금 전달에는 이창재 목사, 정병욱 목사, 강내북 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은 진부교회(이성은 목사)에서 송어회를 대접하며 회원들을 섬겼다. 식사 후에는 웃음노이를 함께 하며 등수에 따라 상품권을 나눠 갖고 또 즐거운 한때를 같이 했다. 겨울축제로 눈썰매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2025년 목회 세미나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1박 2일간 산정리순복음교회(담임 임용재 목사)와 한화리조트 산정호수에서 목회 세미나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목회 세미나에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성 목사)가 함께했다.

첫째 날 오후에 찬양 인도 조미숙 목사(주님의은혜교회), 헌금기도 김경임 목사(순복음가나안교회), 감사 김기성 목사(하늘샘교회)의 순으로 목회 세미나가 이어졌다.

강사 김기성 목사(하늘샘교회)는 ‘목회자의 가치관, 은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 목회자들은 강의를 통해 자신의 목회를 돌



아보며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대표기도 방은혜 목사(임 지방회장)가 마 24:12, 딤후 4:3-4 말씀을 본문으로 ‘격동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련을 기도로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 후 진행된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후 산정호수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늦은 점심을 먹은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 2025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임원 취임 및 신임총회장 취임예배

예장총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 위해 총력



대표회장  
이광문 목사

2025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임원 취임 및 신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문 목사)는 지난 1월 10일(금)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임원 취임 및 신임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리고 새해 나라

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종교다원주의를 뿌리 뽑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도위원 김하인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서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합동전국연합 임원일동의 찬양, 총무 이강수 목사의 세소봉헌주, 고문 여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말 4:5-6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



했다. 예 목사는 특히 새해에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살려내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WCC와 이단 폐망을 위해’, ‘차별금지법과 윤리, 도덕 및 저출산 회복을 위해’, ‘(사)예장총연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 지도위원 주영일 목사, 지도위원 이종태 목

사, 상임회장 이후현 목사, 상임회장 오선미 목사, 지도위원 권혁은 목사, 지도위원 박대규 목사, 회계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고문 김원식 목사의 축사, 고문 육옥수 목사의 축사, 고문 김기형 목사의 격려사, 예장보수합동 총회원들의 헌금찬송, 지도위원 김순중 목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이광문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고문 송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표회장 이광문 목사는 2025년 새해 예장총연에 주신 사명이 실로 막중하다고 전하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 단사이비 배격을 위해 회원교단 모두 협력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을 강조했다.

대표회장 이광문 목사의 사회로 열린 취임식은 감사 김상돈 장로의 대표기도, 이광문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추대장 증정, 이어 상임회장 추대장 수여, 총회장 취임장, 총회장 취임패 수여, 자문위원 위촉장, 위촉패 수여, 지도위원 위촉장, 위촉패 수여, 임원 임명장 수여, 각 위원장 임명장 수여, 예장작은자섬김 총회장 양유식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 정주국제학교 중국 및 국내 명문대 특례입학 꿈 실현 기회

25년도 봄학기 신입생 · 전입생 모집

하남성 정주시 최고의 학교로 손꼽히는 정주중학과 협약을 맺고 드넓은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정주국제학교(대표 이 후진, 교장 이수아)가 지난 1월 11일(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온사랑교회 비전센터에서 입학 설명회를 갖고, 중국의 교육과 문화, 국제 감각의 도시 정주에 소재하고 있는 정주국제학교에서 2025년 봄학기 신입생 및 전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간간담회를 겸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를 여는 확실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후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정주국제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랑으로 섬기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이며 모든 교직원 이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호인 학부모호원회 회장은 “중국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학교는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게 될 예비중학생들에게 중국 유학은 다소 선풍 결정하기 힘든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는 막 정주중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선배 학생들의 유학과정의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조금의 염려가 사라지고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근무중인 9회 졸업생 윤서진

선배는 중국관련 전문인력의 필요는 무궁무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자신 역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신감 있게 맡은 일을 소화해 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재학생 발표에서는 김혜진(11학년) 학생은 “정주국제학교에 입학한 지 1년 만에 중국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학업과 생활에 대한 자유로움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채원 학생은 “정주국제학교는 학문적 성취와 개인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해주는 곳”이라며 북경대 진학 목표를 밝혔다.

정화대 경제학과에 재학중인 12회 졸업생 이종서 학생은 정주국제학교에서의 과정 등을 소개했다. 이종서 학생은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었고 중국어로 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쌓았고, 북경대와 정화대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종서 학생은 본인과 부모님 모두 중국행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공부는 물론이고 신앙생활 전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지도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며 중국대 명문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뿌듯하고 정주국제학교를 선택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5년 봄학기 신입생 및 전학생 모집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나 학생은 중국(136-73681114/186-38013570)이나 한국(010-2357-3260/010-4932-2002/070-7443-0114)로 문의하면 된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속 논평

## 통치권 행사 대통령 불법 체포 구금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뒤 오후 9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참담하다.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지난 1월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 1월 14일~16일)에서 발표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 힘이 39%로 야당 민주당이 36%를 앞서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가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1월 19일 보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월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의 상징적 존재인 이견희 회장이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자기성찰의 말은 아직도 우리 정치현실에 적용되는 말이다. 자기 쇄신을 한 삼성은 이제 세계적 기업이 되었으나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모멸감을 깊이 느껴야 한다.

살통내비는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대하여 이는 한국 정치의 수치스러운 현주소, 한국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깊은 자기 수치를 느껴야 할 것으로 보고다음같이 우리 견해를 표명한다.

1.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 수감체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 집행에 대하여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답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에 응한 것은 불법 체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경찰들도 청년이고, 경호처 직원들도 청년인데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지도자다운 태도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포에 응한 대통령은 제왕적 존재가 아니라 고립된 약자(弱者)로서 시민의 다짐을 막기위한 희생자가 되었다.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 수감체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치 현실의 수치요 정치 지도자들은 깊은 자괴감을 가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현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들에게 “모리배”라는 비난이 가해지는 것을 들을 때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3. 체포 적부심 기각은 사법부의 편향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석방되어 통치권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구속과 절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다.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고 수천명 경찰과

나라의 법치를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에서 계엄선포에 대한 정당한 변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다.

4.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하여 나라의 민주체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비록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무효화하면 되지만 비상계엄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서구국가들에서도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도 기각하였다.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은 법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벌써 현재가 재판 시작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무시하는 등 거대야당에 불공정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이는 법치에 위배한다. 현재는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6. 현재는 대통령측이 제기한 정당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 독재를 경고하고 계엄령이 탈원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통치권자로서 거대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부정은 전산 시스템의 조작과 해킹 가능성으로 인한 투표 조작의 구조적 문제로서 법치사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투표 조작과 부정에 의하여 당선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제시할 계엄 선포의 가장 중요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전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회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민들이 국론 분열 극복과 화합하도록 하는 중재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데 대하여 항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 수괴로 몰아침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 이야 말로 하극상이요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법질서가 무너져 현직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불법 체포되는 엄청난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하도록 충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오직 공평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이다.”(잠 5:24). 그리고 한국교회는 분열된 국론으로 흩어진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일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중재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한국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데 대하여 항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 수괴로 몰아침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 이야 말로 하극상이요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호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를 관저에 수천명의 체포조 형사를 투입하여 체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는 선진국 위상에 올라간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40년 미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은 없었고, 도덕적 잘못을 범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야 지도자들은 미국의 헌정을 위하여 그를 탄핵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지도자들이 중용을 추구하는 타협과 절충의 정신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인원을 동원하여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서부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공수처는 판지 출입 거처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태가 자행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불법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면서 개탄하였다. 대통령은 “이 출석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절차가 헌법과 법체계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는 책임을 묻어야 한다.

중앙지검에 요청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편향을 보여준다. 이

었다고 말하고 있다

5. 현재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편향 행위는 비난받고 있다.

지금 현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하여 논란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제약시키는 행위다. 이는 자유민주사회의 법치 질서에 배치된다. 현재측이 재판일정을 피고인과 혐의없이 임의로 정한 것은 형소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현재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황필규)가 탄핵소추대리인단 이사장이 있는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그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부정사태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선관위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범죄자가 존립에 위배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선택과 달리 부정으로 당선된 자가 있다면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을 내세워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7. 사법부, 특히 현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부정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는 사람에 대한 문



# 美 역대 최악 산불에…LA최대 피해

## 기독교 단체들, 피해자 지원 나서 LA 카운티에 긴급 구호품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에 본부를 둔 기독교 단체 ‘시티서브’(CityServe)와 버지니아주 포레스트에 위치한 ‘월드헬프’(World Help)는 지역교회 및 사회 파트너와 협력해 LA 카운티에 긴급 구호품을 배포하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지속되면서 LA 전역에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했다. 팔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리디아, 섀넬 화재를 포함해 이번 화재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9천 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됐으며, 18만 명이상이 이재민이 됐다.

시티서브는 피해를 입은 가정에 물, 음식, 위생용품,

의류 및 기타 필수품이 실린 구호 트럭을 보냈다. 시티서브 네트워크의 전무이사 칼 하르게스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산불 규모와 희생된 생명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삶이 뒤바뀐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연민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교회 및 커뮤니티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헬프도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단체는 LA카운티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대피소, 식료품, 위생용품, 유아용품 등 긴급 필수품을 전달했다.



# “가자지구, 휴전환영 평화 지속되길”

## 월드비전 취약한 이들에게 제한 없는 인도적접근 필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20일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환영하며, 이번 휴전이 수많은 어린이와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폭력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월드비전은 “약 15개월간 이어진 분쟁으로 가자지구는 황폐화됐고,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어린이들은 상상조

차 하기 힘든 고난과 트라우마를 겪어 왔으며, 이번 휴전이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인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월드비전은 인질 석방도 환영하며, 분쟁 속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린이가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설야의 맥박이여

앞산 가득 설화가 만발한데  
흐르는 사풍 잠시 쉬어가네.

백야의 적막함이며  
은빛 나그네 길손을 멈춘다.  
백야의 맥박이며  
고요의 심장 영원으로 깨어나라.  
태고의 소리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셨다.

우주삼라만상 천상천하여  
주의 말씀 아니 계신 곳이 없도다.  
온 산하여 주를 찬양하라.  
온 누리여 주의 사랑 이루리.

아 넘쳐흐르는 주의 사랑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어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사랑 영원하구나.  
미완의 24년이며  
일촌광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명의 25년 새해의 깃발을 올렸다.  
아 그대 코람데오의 길이며,  
한해의 여정, 길고 먼 순례자의 길따라  
오직 주의 영광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  
예수님의 향기로 피어나소서.

가족세트전도 영접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곳곳에 훈련받은 전도왕들이  
멋지게 활약하고 있다.  
그중에 한분 이재민 목사도  
이번에 미스바심자가 중심으로  
연합집회를 통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  
15년 전에 평내순복음교회 전도왕  
박영수 목사 전도훈련을 받고  
서울역 전도왕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다.

전도현장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전도의 불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불을 통하여  
전도의 불을 붙이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 신장이식 새생명 목사들, 제주 라파의 집 후원

## 라파의 집에 1만여 명의 만성신부전 환자가 다녀가며 삶의 희망 얻어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이사장)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만성신부전 환우 쉼터 ‘라파의 집’에 신장이식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두 목사가 후원을 해 관심을 모은다.

만성신부전으로 투병하던 최가와 목사(여시나 신장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하늘소망교회의 안윤철 목사가 주인공이다. 먼저 최 목사는 지난 2004년 본부의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

당시 목회자였던 기증인의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목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로마교회를 개척하여 오랜 꿈을 이루었다.

아직 성도가 아내와 본인 두 명뿐인 작은 교회지만, 최 목사는 분기마다 공익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 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2004년 생면부지 타인인 한 목회자의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한 최 목사는 이후 이식 거부반응 때문에 다시 신장이 기능을 잃는 등 시련을 겪었지만 2년 전, 아내로부터 다시 신장을 이식받았다.

두 번의 생명나눔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최 목

사는 지난해 연말 제주 라파의 집의 어려움을 접하고, 로마교회 명의로 100만 원을 후원하며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격려했다.

안윤철 목사도 2001년 아내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안 목사는 2017년 이식 받은 신장이 다시 그 기능을 잃으며 현재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아 몸속 피를 꺼내어 노폐물을 거르는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2007년 건립된 제주 라파의 집은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개방되어 치료와 함께 속식과 여행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국내 유일의 공간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나눔의 손길과 수많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라파의 집에 1만여 명의 만성신부전 환자가 다녀가며 삶의 희망을 얻었다.

#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3명 석방… 가족들 사진 공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471일간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지난 1월 19일(주일)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간) 직전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마스는 합의된 시간보다 늦게, 석방될 예정이었던 로미 고넨, 도론 슈타인브레허, 에밀리 다마리 인질 3명의 이름을 전달한 후 이들을 석방했다. 이들은 6주 안에 석방될 예정인 33명의 인질 중 처음으로 풀려났다.

아랍권 뉴스 매체에서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첫 번째 휴전 때와 같이 가자 주민들과 가면을 쓰고 무장한 수십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가자 시의 광장에 도착한 인질들을 맞았다. 인질 3명은 적십자 차



량으로 옮겨져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이하 IDF) 초소로 이동했다.

이들은 IDF와 이스라엘보안청 군인들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국경까지 차로 이동했다. IDF는 이들이 이스라엘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의 영상도 공개했다.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형)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갑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우리나라 복음 이야기

“복음이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결코 손님으로 암전하고 공손하게 있었던 적은 없다. 그 복음은 반드시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s).

춘원 이광수는 기독교가 조선에 끼친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크게 8가지로 감사를 말했습니다.

① 한국인에게 서양사상을 알리는 데 공헌한 것 :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중심의 세계를 알뿐 세계의 넓은 세상과 사상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하여 넓은 세계가 있으며, 발전된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도덕진흥에 기여한 일 :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등이 죄악인 것을 모르던 민족에게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을 일깨워주었습니다. ③ 교육보급에 기여한 점 : 서양의 현대적 학문(수학, 과학, 지리 등). ④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점 : 당시 여성은 아반의 노예였습니다. ⑤ 한글을 보급 시킨 점 : 세종대왕도 다 이루지 못하였던 한글보급이 교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훈(早婚)의 폐해를 교정한 점. 사상의 자극(刺激)에 기여한 일. 인간 개성 자각에 기여한 점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기독교의 역할을 빼놓고는 역사 서술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교회의 역할은 지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성을 증진시킨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조선말에는 ‘동방예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도덕적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탓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좀도둑(양식 훔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처럼 되어 있었으며, 남성들은 부인 외에 다른 여성을 취하여 함께 사는 일이 양반들의 행세처럼 되어 있었으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조선 시대 관공소에서 운영하던 관기제도(여성을 성 접대 官妓)가 1894년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대로 계명을 지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도덕성을 깨우친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부패와 부정한 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8,16)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그리로...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 있어

육체는 일어나 그리로 갑니다.

예전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을 불러내는 찬송소리 있고

내 영혼을 세우시는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시고

감추인 죄를 드러내는 곳

육체는 일어나 그리로 갑니다.

내 영혼 갈 곳 잃어 서성이고 있을 때

복된 자리 이곳이다 하는 그곳으로...

말씀의 새김질로 찬송을 회복케 하는 곳

육체는 일어나 그리로 갑니다.

예전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새벽예배를 가지 못하다 결심하고  
나선 그 새벽길의 감동을 적다.

사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대통령 관저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함성이 국가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의 핵심이 되는 ‘내란죄’를 뺐다. 일단 탄핵시키기 위해 ‘내란죄’로 몰고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지니 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의 그런 알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내전을 치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국가로 만들려는 세력, 자유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 세력, 법치주의 대 일극(一極)체제와 독재정권을 세우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대한민국은 서 있다.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는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은 ‘대통령 수갑 채우고 나올 때까지 몇 날 며칠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라’고 공수처장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도 ‘대통령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선동했다고 한다. 어느 시대 국회의원인가?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왔다. 여론이 조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음을 알고, 반국가 세력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에 득세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북한 공산당에 의한 6.25전쟁의 암흑 속에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일에도 앞장서서, 이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해 왔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를 잃으면 우리 삶의 터전도, 신앙의 발판도 무너진다. 세계 선교를 위한 교두보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 속담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가? 지금은 해방정국과 비슷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현실의 세계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국민은 공수처에 대통령을 체포할 법적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내란죄’ 판단은 현재의 몫이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선 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할 해당사항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공수처

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모두 불법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만에 하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인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소방 장비를 동원해 경호 보안구역을 침입하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시간에 서울 과천 공수처 주변에서 시위하던 60대 시민이 분신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29명의 국무위원과 기관장, 검사들을 줄줄이 족집게로 집어내듯 탄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야당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행이 된 국무총리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한 건 목적이 국정 안정이 아닌 정권 찬탈에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들게 했다.

탄핵소추 이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심지어 수사 관조차 없는 공수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 가결 직후 20%대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치솟 현상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민 의힘 지지율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보다 오차를 넘어 앞서는 조사 결과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속한다. 그런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권한 또한 입법부에 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위헌적인지 하는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앞으로 헌재가 심리를 통해 판단할 문제다.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법치인 것이다. 그런 절차에 앞서 정치적인 단죄를 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욕심과 조급증이 아무 권한도 없는 공수처를 도구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않은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기념촬영 광경

-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3월 1일(토)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만원
- 대 상 : 교단 산하 청년들

동계 연합수련회 일정표		
시 간	2월 28일(금)	3월 1일(토)
07	여서워요~	기성 및 조직
08		장려 및 숙소, 성전 청소
09		찬양: 순복음아멘교회 신앙의 OMA (특별: 목사님들)
10		매회 기도회 연도: 문찬우 목사
11		
12		
13	접 수	접으로~
14	개회예배 찬양: 오순절찬양교회 시화: 오세준 목사 기도: 청년 중 성교: 총회장 김영준 목사	
15	조망거리 (아이스브레이크) (담양: 고대준 목사)	
16	휴 식	
17	찬양 콘서트 찬양사역자 소개: 문찬우 목사 ( 하츠윌 찬양 시범지 )	
18	제석식 및 휴식 (조별로 석식 진행)	
19	특 강	
20	휴 식	
21	제석 집회	
22	경매와 찬양: 대경 병영교회 강사 소개: 문찬우 목사	
23	강 사: 김원찬 목사 기도회 연도: 문찬우 목사	
24	휴 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차장 문찬우 목사 010-5420-2787